

목포 외달도 70·80대 어르신들이 부르는 달달한 노래

국내 첫 섬마을 '달달 합창단' 뒀다

“엄마가 외달도에 굴 따라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려주는 자장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지난 25일 오후 3시 목포에서 뱃길로 30분 거리에 있는 외달도 한옥 민박집에서 건반의 경쾌한 반주소리와 함께 가냘픈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국내 최초 섬마을 합창단인 목포 '달달 합창단'이 오는 2일 첫 공식 무대를 앞두고 목청을 돋웠다. 10분 정도도 서있기 힘든 70~80대 어르신들이지만, 열정만큼은 프로 합창단 못지 않았다.

'달달 합창단'이란 단명은 '사랑의 섬'으로 더 유명한 외달도의 상징을 살려 사랑은 '달달하다'는 뜻과 약보를 '달달 외운

음표·한글 몰라도 열정은 최고 18명 참여...내달 2일 첫 공연

사계절 관광상품 만들고 싶어 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사실 합창단원 중에서 약보를 처음 본 분이 대부분이고 일부 단원은 한글도 읽지 못하지만, 저마다 노래 실력만큼은 '외달도 최고'를 자신한다.

달달 합창단은 목포시가 '찾아가고 싶은 섬 가구'사업으로 주민 화합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지난 9월 창단됐다.

외달도에 거주하는 20가구 중 18명이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서영기 목포시합창단무장의 방

문 지도를 받고 있다.

창단 초기에는 주민들 간 소통도 안 되고 참여 인원도 들쭉날쭉한데다가 변변한 연습장소마저 없어 뼈격대기도 했지만, 이제는 합창단이 인생의 전부인 듯 열정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반주를 위해 99만 원짜리 디지털 피아노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 마을 조영철 통장은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웃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합창단이 구성된 이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면서 “박자가 틀려도 웃고, 음정이 틀려도 웃고, 노래를 잘 불러도 웃고, 이웃과 함께 웃다 보니 노래에도 활력이 넘쳐난다”고 말했다.

합창단의 맏인인 김금재(83) 할머니는 “(노래)부를 때 뿐 이렇게, 돌아서면 잊



국내 최초 섬마을 '달달 합창단' 단원들이 내달 2일 첫 공식 무대를 앞두고 외달도 한옥 민박집에서 합창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어 부러. 콩나물처럼 생긴 것(약보) 보다가 선생님 눈치보다가 눈과 입만 바쁘게. 민폐여. 그래도 재밌어”라며 활짝 웃었다.

지휘를 맡은 서 단무장은 “태어나서 합창이란 걸 처음 해보는 분들이다. 음표는 물론이고 한글을 모르는 분들도 계신다”면서 “그래도 들려드리고 불러보게 하고 동기를 부여했다니 생활의 소리가 화음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달달 합창단이 연습하는 곡은 '고향의 봄', '섬집 아기', '고수원 길'을 메들리로 만들어 개사한 '외달도의 노래'와 '섬집에서 외연가'를 모은 '가곡 모음곡' 등 2곡이다.

이들의 첫 무대는 내달 2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리는 '국제 녹색 섬 포럼'으로 잡혀 있다. 주민들은 첫 무대를 통해 섬마을 합창단의 존재를 알리고, 이를 계기로 외달도 맞춤형 공연을 올려 사계절 관광 상품으

로 만들어내겠다는 큰 꿈에 부풀어 있다.

한편 목포시는 외달도가 행정자치부의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비롯한 섬생태를 활용한 숲 생태학교, 마을공동체 사업장인 다솜센터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 7~8월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들을 초빙해 '달달 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목포=글 사진 고규석 기자 yousou@



'춤추는 바다분수' 오늘 올해 마지막 공연

목포 평화광장 앞 '춤추는 바다분수'가 화려한 분수쇼를 선보이고 있다.

총 427회 공연 52만명 관람...내년 3월까지 휴식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 랜드마크인 '춤추는 바다분수'가 30일 공연을 끝으로 내년 3월까지 휴식에 들어간다.

평화광장 앞 밤바다를 화려한 빛과 20~70m 솟구치는 물줄기로 장식하고, 다채로운 이벤트로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하는 바다분수는 매년 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목포의 명물이다.

29일 목포시 관광과에 따르면 올해는 205일 동안 92곡의 분수 음악연출과 45곡의 레이저쇼 등 총 427회 공연을 통해 52만명(하루 평균 2800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념일·프리프로즈·생일축하 등 985건의 사연이 소개돼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사연이 소개된 이전전제는 "프리프로즈에 성공했고, 여자 친구도 너무 좋

아했다. 목포를 잊지 못할 것 같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방문후기를 남겼다.

목포시 관계자는 “겨울철 기온 저하로 시설물 손상이 우려돼 휴식기를 갖게 됐다”면서 “휴식기 동안 레이저와 영상을 분수와 함께 연출하는 그래픽을 업그레이드하고, 시설물을 보수·보강해 한층 발전된 공연을 내년 4월부터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목포시 소규모 예산으로 특특 튀는 시책 '눈길'

'내 꿈 공부방' '1만원의 희망플랜' 등 소외계층 지원

목포시가 소규모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참신하고 특특 튀는 신규 시책을 개발·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내년도 신규 시책 중 ▲희망 찾아가기 '내 꿈 공부방' 조성 ▲1만원의 희망 플랜 ▲경력 단절 여성 '찾아가는 취업 카페' 운영 ▲강사 은행을 활용한 감사 배달 등이 소규모 예산을 활용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내 꿈 공부방' 조성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공부방을 만들어 주고, 안정된 학습 분위기 속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목포시는 저소득층 자녀 중 공부에 열의가 있는 초·중·고 학생 10명을 선정, 10개소에 목포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모임인 사회복지행정연구회 적립금 1000만원을 활용

해 도배·장판·전기 설비 등 환경개선과 함께 책상·의자·학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

이다. 또 '1만원의 희망 플랜'은 '1만원 희망 보람'으로 장애인에 1년 보령료로 1만 원을 내면 각종 상해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목포시는 국민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중 지체 2급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12월 중에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종교단체나 학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1대1 매칭으로 추진된다.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30~50대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취업 카페' 사업은 직업 적성·선호도 검사, 구직활동과 직업 훈련, 취업 상담 등을 통해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목포시는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해 원도심과 신도심을 권역별로 나눈 뒤 총 4곳의 동 주민센터에 취업 카페를 운영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취업난 해소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사은행을 활용한 감사 배달'은 주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곳으로 배움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학습 서비스'로, 목포시 강사 은행에 등록된 강사를 무료로 파견하는 사업이다.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목포시민이나 단체, 직장인들이 감사 배달을 신청하면 신청자가 희망하는 장소로 강사를 보내주고, 강사비는 전액 목포시가 부담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페이 고(Pay-Go) 원칙에 입각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하드웨어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주안점을 두고 소규모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신규 시책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특히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인, 여성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해 다함께 살아가는 복지도시 건설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목포지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랑의 연탄' 훈훈

600장 배달 나눔 봉사활동

광주지방감찰청 목포지청(지청장 고석훈)과 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혁영)가 최근 목포시 서산동

보리마당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목포지청 지청장과 검사, 수사관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혁영 이사장을 비롯한 위원 40여명은 이날 연탄 배달이 어

려운 비탈 골목길에 거주하는 불우 가정 2곳에 연탄 600장을 직접 배달했다. 또 인근 어려운 이웃들과 쌀과 라면 등 식생활품을 전달했다.

한편 목포지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매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등을 진행하고 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장복성 시의원 "시니어클럽 육성...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목포시가 어르신(실버) 일자리의 다양화와 목포시민의 특화된 일자리 보급을 위해 '시니어클럽'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복성 목포시의회 의원은 제323회 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목포시 노인 일자리 사업이 거리·공원 청소 등 지역 환경정비, 노노 케어 사업 위주의 공공형·복지형 일자리 영역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도 노

인의 사회참여 욕구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수익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니어클럽은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동시에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켜 심신의 건강까지도 유지시켜주는 어르신 일자



리 사업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어르신들의 경력을 지역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할머니 손맛 반 전문점이나 할머니 손맛 도시락 사업단, 무궁해 콩나물 재배, 손 된장·간장 제조, 시니어 푸드, 백세 할머니밥상, 시니어 북카페 등을 제안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Advertisement for JaUtour (자유투어)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various destinations like Hanoi, Cambodia, and Incheon.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

Large advertisement for JaUtour celebrating 22 years, featuring a grid of travel packages with prices and details for destinations like Bangkok, Laos, Cambodia, Vietnam, and Incheon. Includes a 'Free Market' section for weekly events.